

news 1 KOREA with essays from The New York Times

# Turning Points

Global Agenda 2022



## 변화의 파고를 넘어서

“디지털 세상과 세대교체”

수치 레디: 디지털 미래 설계

특별 대담: 무정부주의, 기후변화, 핵전쟁에 대한 놌 촘스키와의 대화  
MZ세대가 온다... 한국 정치에 부는 세대교체 바람 | 빅 퀘스천: 일의 세계는 영원히 변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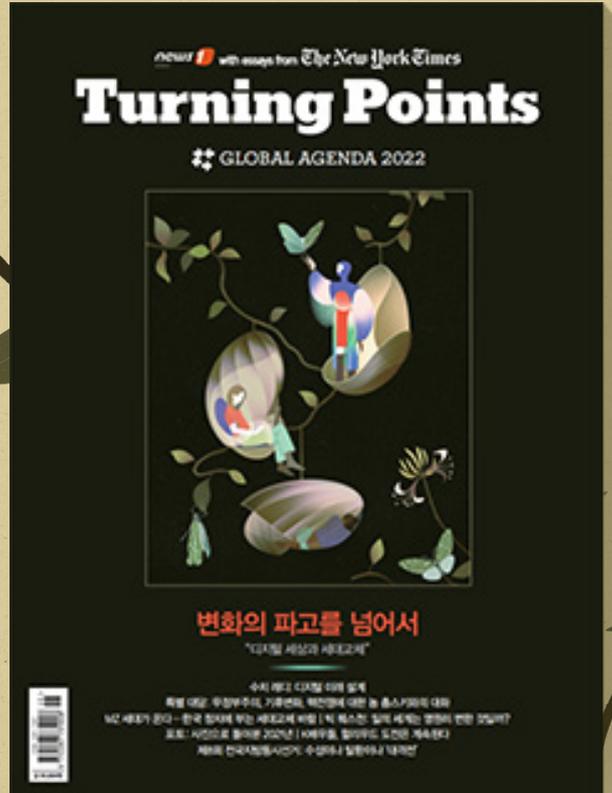
포토: 사진으로 돌아본 2021년 | K배우들, 할리우드 도전은 계속된다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수성이나 탈환이나 '대격전'



9 772287 1734008

값 35,000원



뉴스1이 뉴욕타임스(NYT)와  
 매년 공동으로 제작하는 ‘터닝 포인트’는  
 한 해의 변곡점들을 돌아보고  
 새해의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는  
**‘신개념 연간 매거진’**입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스1 편집진은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트렌드를 집약한 결과, 터닝 포인트 2022의 주제로 ‘변화의 파고를 넘어서’를 선정했습니다.

2019년 말 시작되어 2020년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가 2021년을 넘기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과 접종이 시작되어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에 맞서고 있지만, 바이러스도 변이체를 만들어내며 끈질기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상이 된 마스크 쓰기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규제 강화와 완화의 반복이 인간관계, 경제활동, 문화활동, 여가생활 등의 일상 복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대미문의 격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좌절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난제에 부딪히면 해법을 모색했고, 이는 문명을 유지하고 번영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인류는 이를 글로벌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풀어야 할 난제들이 가득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격렬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질서 재편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위상 변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발돋움하며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가속화 속에서 인공지능(AI)은 메타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상공간이 현실과 접목되면서 인류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2022년에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에 ‘터닝 포인트 2022’은 새해를 조망하는 커브스토리로 수치레디의 ‘디지털 미래 설계’, 알리아 칸의 마스크 착용의 예의, MZ세대가 온다...한국 정치에 부는 세대교체 바람 등 3건을 선정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트렌드를 가능해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활동가이자 뮤지션인 음두 목타르, 패션 디자이너 알리아 칸, 사진작가 히로시 스기모토, 작가인 이사벨 아엔데, 소설가인 다비드 디오프, 환경운동가 카롤라 라케테, 여자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나, 아티스트 브라이언 도넬리, 나사의 엔지니어 크리스티나 에르난데스 등 각계의 명사들이 필자로 참여했습니다.



## 1. 커버 스토리

### (1) 디지털 미래 설계

2021년 코로나19 제한조치가 해제되기 시작했지만, 일부 디지털 습관은 지속됐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나타난 공간과의 연결 본능은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온라인과 클라우드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물리적 현실과 통합되고 있다.

### (2) 마스크 착용의 예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관행이 됨에 따라 히잡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패션'이 제공했던 장점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이슬람 복장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명을 벗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 MZ세대가 온다...한국 정치에 부는 세대교체 바람

한국 정치에서 지난 40여 년간 군림해온 586세대는 막을 내리고 대선 결정권은 밀레니얼 Z세대가 신형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대선 후보들은 정치문법까지 바뀌 놓은 2030세대의 표심을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 2. 특별 대담

### 무정부주의, 기후 변화, 핵전쟁에 대한 놈 촘스키와의 대화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는 진행자 에즈라 클라인이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촘스키가 우리에게 바라는 앞으로 건설해야 할 세계가 무엇이며 그 이유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모든 타협, 불완전함, 모순에도 그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바라는 구해내야 할 세계에 관한 대화이기도 하다.

## 3. 빅 퀘스천

### 일의 세계는 영원히 변한 것일까?

홍콩 테이트 다이닝 룸의 총주방장 비키 라우, 영국의 가수·작곡가·활동가·사회평론가 빌리 브래그, 미시간대 경제학과 공공정책학 교수인 베시 스티븐슨과 저스틴 울퍼스, 언론인·작가인 티나 브라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교수 로자베스 모스 칸터에게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일의 세계는 영원히 바뀐 것인지 물었다.

## 4. 사진으로 돌아본 2021년

사건과 사고, 그리고 절망과 희망

## 5. 뉴욕타임스 앨머넥

터닝 포인트 속 뉴욕타임스 미니 백과사전

**수치 레디**

Suchi Reddy

디지털 미래 설계



건축가. 고향인 첸나이, 인도,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레드메이드 아키텍처 앤 디자인을 설립했다. 맨하탄 첼시 중심가에 위치한 구글 뉴욕 본사 1층에 있는 구글의 첫 오프라인 매장 '구글 스토어'가 그녀의 작품이다.

**알리아 칸**

Alia Khan

마스크 착용의 예의



패션 디자이너. 이슬람의 패션과 디자인에 관한 관심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이슬람 패션 디자인 위원회의 의장이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성장한 그녀는 이슬람 패션과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디자이너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간과된 끝에 그녀의 노력이 재조명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DXB 100'에 이름을 올렸고, 'CEO 매거진/아랍 비즈니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랍 여성 5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히로시 스기모토**

Hiroshi Sugimoto

종말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사진작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기억과 시간 사이의 공간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들은 워싱턴 D.C.의 허쉬혼 박물관과 조각 정원, 도쿄의 모리미술관, 뉴욕의 현대미술관 등에 전시됐다. 그는 사진 분야에서 하셀블라드 파운데이션 인터네셔널 어워드와 이사무 노구치 어워드 등을 포함해 많은 상을 받았다. 2017년에는 일본의 문화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일본 문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높은 영예다.

**이사벨 아엔데**

Isabel Allende

여성들이 서서히 가부장제를 허물고 있다



24권 이상의 책을 쓴 칠레의 작가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정령의 집』(1982) 등이 있다. 그녀의 부친은 1970~1973년 칠레의 대통령을 지낸 살바도르 아옌데의 사촌이다. 아옌데 전 대통령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강제로 물러났다. 그녀는 마술적 사실주의(매직 리얼리즘) 요소를 작품에 주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칠레 국립 문학상을 받았고, 2004년에 미국 예술과 문학 아카데미에 헌액되었다. 2014년에는 미국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았다.

**카롤라 라케테**

Carola Rackete

기후 변화 싸움에서 특권이 의미하는 것



환경 운동가. 지중해의 해양구조 NGO에 자원한 '시위척 3호'의 선장으로서 이탈리아 항구에 허가 없이 이주민 구조선을 정박시킨 혐의로 체포되면서 유명해졌다. 그녀는 경력의 대부분을 생태학과 보존 관리에 집중하면서 남극의 과학 연구에 보냈다. 2019년에 인도주의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카탈로니아 의회의 명예 훈장을 받았다.

**크리스티나 디아스 에르난데스**

Christina Diaz Hernandez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



엔지니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 추진 연구소의 탑재 시스템을 설계했다. 1세대 멕시코계 미국인이며 2020년 7월 발사되어 2021년 2월에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에 대한 7개의 과학 기구 중 3개를 연구했다.

**음두 목타르**

Mdou Moctar

식민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뮤지션. 니제르 아가데즈 출신의 작곡가이자 음악가다. 현대 전자 공연에서 전통 투아레그 기타 음악을 각색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음악가 중 한 명이다. 그의 파격적인 명성은 그의 음악을 휴대폰과 메모리 카드로 교환하던 팬들에게서 비롯됐다. 그의 가장 최근의 앨범은 2021년의 ‘아프리카 빅티姆(Afrique Victime)’이다.

**캐스터 세메나**

Caster Semenya

캐스터 세메나가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나?



남아공의 중거리 달리기 선수. 여자 800m에서 2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땀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세 차례 우승했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육상기구의 규칙은 세메나와 같은 여성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한 400m, 800m, 1,500m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녀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도쿄 올림픽의 800m 경기 출전이 무산됐다.

**다비드 디오프**

David Diop

우리의 박애주의 정신의 깊이



소설가. 프랑스에서 프랑스인 어머니와 세네갈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소설 『프레르담』으로 2021년 국제 부커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은 최초의 프랑스 작가이자 최초의 아프리카계 인물이다. 소르본대학에서 18세기 프랑스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파우대학과 아두르 지역의 예술, 언어, 문학부장을 맡고 있다.

**다우드 베이**

Dawould Bey

월드 아웃룩: 과거는 현재다



사진작가. 대표성이 떨어지거나 눈이 드러나지 않은 공동체들을 다룬 많은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인 사진작가다. 그의 작품은 휘트니 박물관, 할렘의 스튜디오 뮤지엄, 샌프란시스코 모나(MOMA),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등에서 전시되고 있다.

**브라이언 도벨리(커즈)**

Brian Donnelly a.k.a. "KAWS"

월드 아웃룩: 우리의 짐을 짊어질 동반자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 ‘KAWS’로 알려졌으며 작품은 순수 예술 화가들의 작품은 물론 거리 예술과 그래피티 작품들에서도 영감을 받아, 특유의 눈을 ‘x x’로 표현한 독특한 조형물이 유명하다. 미술 세계는 물론 상업적 성공 사이에 가교를 놓은 인물로 앤디 워홀과도 비교되는 인물이다. 가장 잘 알려진 광고 프로젝트 중에는 201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를 위한 ‘문맨(Moonman)’ 트로피를 재설계한 것과 일본의 의류업체 유니클로와 사랑스러운 어린이 캐릭터 티셔츠 디자인을 협업한 것이 있다. 그의 조각과 예술품은 판매 가격이 점점 치솟고 있으며, 비틀스의 명반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에도 장식되어 있다. 이 앨범은 2019년 홍콩에서 예상가인 1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1,470만 달러에 팔렸다.

# The Year in Photos : World



## 2021년 세계

1. 미국 - 러시아 정상회담
2. 이스라엘 - 하마스 휴전
3. 영국 에든버러 공작 필립공 사망
4.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 The Year in Photos : Korea



## 2021년 국내

1. 도쿄 올림픽
2. 경공격기 F-50에 탑승한 문재인 대통령
3. 오징어게임 열풍
4. 요소수 대란



**경제**

우리 경제에 드리운  
'퍼펙트 스톰' 그림자



**사회**

피싱과의 전쟁  
나서는 경찰



**사회정책**

6월 지방선거,  
3월 대선 결과가 판세 가른다



**금융증권**

2022년  
'찐' 수혜주 찾기



**산업1**

막오른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산업2**

'찐의 전쟁'  
이제 시작이다



**건설부동산**

'안갯속' 2022년 부동산시장  
2022년 부동산정책 화두는 '공급·대출·금리'



**ICT과학**

사람도 아닌데  
1년에 130억 원 번다



**스포츠**

더 중요해진  
'여자배구'의 2022년



**연예**

K배우들, 할리우드 도전은 계속된다  
'오징어 게임'으로 만개한 K콘텐츠의 저력



**전국**

수성이나 탈환이나  
대격전



**문화**

이제 우리  
해외로 여행간다



**바이오**

코로나19 백신 개발  
'플랫폼'이 궁극적 무기